

# 아이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복지가 발달된 도시의 시민들은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정읍시는 올해 복지교육 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는 2천 766억원으로 편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교육 도시 정읍'을 슬로건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해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 ▲ '정읍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복지 체감은 도 UP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생활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체감온도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차례에 걸쳐 전 시민 재난기 본소득 지원금 319억6,400만원을 지급했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 생계지원,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 자가격리자 긴급 생활품 지원 등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이 시작된 총 107억원 규모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의 지역확산을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 관리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간 자가격리 2,600여 세대에 1억4,400만원의 생활품을 지원했다.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1,639세대에 13억4천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했다.

### ▲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기반 구축

시는 올해 약 51억원을 편성하고 지역 내 724개소 경로당에 대해 마을 단위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억4,5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 등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 2만 5,000명에게 기초연금과 노인복용비를 지원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

### 노인복지 중추 경로당 지원 추진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연령 확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상 늘려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원 돌봄 공동체 조성 육아 나눔터 운영

####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가입 확대



상으로 4억9,700만원을 투입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보수 지원이 부족한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 ▲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 장학금·구직지원금 지급



#### ▲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 '체육복' 무상 지원

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중·고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 대해 1인당 7만원의 체육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정읍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1,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내년 2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조기 정착과 사회 초년생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비추어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인과 노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차(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된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장애인과 노인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함께 나눠요~ 부모 행복! 아이 행복!...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육아·공동돌봄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수유실, 유아 화장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 놀이, 또래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인 가족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한다.

#### ▲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 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비추어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35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노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문화여가활동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5개 영역(사업관리, 인력관리, 기관관리, 조직 운영, 평가보고서) 평가를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층 발전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을 계속 기울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과 적절한 배분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함께 나눠요~ 부모 행복! 아이 행복!...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육아·공동돌봄 공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 수유실, 유아 화장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장난감과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 놀이, 또래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인 가족 돌봄 품앗이 활동 등을 지원한다.

#### ▲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 역량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비추어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 섬진강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IMSIL-GUN  
임실군